

광주시, 방치 도시공원 4곳 민간 개발 추진

미집행 20년 계획시설 일몰제 공원 70% 기부채납 조건 8월까지 공모 뒤 협상·심의

20년 이상 방치됐거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대규모 도시근린공원 중 일부가 개발된다. 광주시는 27일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25곳 중 4개 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4곳 대

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민단체 설문, 공청회, 해당 지역 자치위원 및 통장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방식과 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6일 시 홈페이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공고를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1999년10월21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7월 1일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다.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은 25곳이며, 공원 조성에는 사업비 2조7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전체면적이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

기 위해 시민심사단을 구성해 평가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간 사업 타당성 검증 등 협상을 한 후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민간공원사업추진자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이 조성되면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이 확보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열섬현상을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시 재정 부담을 낮추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고압선 주변 가로수 가지치기 광주시, 다음달까지 완료

광주시는 고압선(한전배전선로) 주변 가로수 가지치기를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다. 고압선(한전배전선로) 주변 가로수 가지치기는 가로수와 고압선이 닿지 않도록 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봄에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당초 가로수 가지치기를 4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를 장착해 가지치기를 시행하는 작업 방식이 안전 관련 규정에 어긋나고 작업 차량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광주시는 가지치기 작업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사용을 중지시키고,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와의 차량 협의 및 추가 예산 협의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 5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작업차량 등 안전 문제로 가지치기 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가로수가 도심 경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작업 구간 통행 차량 등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압선(한전배전선로) 주변 가로수 가지치기는 광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04년부터 해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필문대로 등 140개 노선, 가로수 3만여 그루를 가지치기 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제6회 전국 우리밀 요리 경연대회’가 다음 달 28일 송산유원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모습. <광산구 제공>

“우리밀 요리 뽑낼 80개팀 찾습니다”

다음달 10일까지 접수

전국의 요리사들이 총 상금 1100만원을 놓고 우리밀 요리 경연을 펼친다. 광산우리밀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천익철)는 “제6회 전국 우리밀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회는 오는 5월28일 송산유원지에서 개최하는 제11회 광산우리

밀축제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다. 전국 우리밀 요리경연대회는 다양한 요리법을 알려 우리밀 저변을 확대하고, 빵과 과자 등 관련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로 여섯 번째 열고 있다. 대회는 일반부와 학생부 2개 분야로 구분해 진행한다. 각 분야 금상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또 일반부와 학생부 통합 우승팀에게는 상장

과 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참가신청은 광산우리밀 홈페이지(mil.gwang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음식 조리법 등을 적은 작품 개요서와 함께 이메일(gmfestival@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대회 참가신청 마감일은 5월10일까지이다. 광산우리밀축제추진위원회는 참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본선에 진출할 80개 팀을 다음달 15일까지 광산우리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5월1~17일 광견병 예방접종하면 5000원

광주시는 불철 반려견 나들이가 많아지는 5월1일부터 17일까지 지정동물병원 79곳에서 반려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관내 생후 3개월 이상의 동물등록제에 등록된 반려견이며, 집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접종비는 5000원이다. 평소 접종비는 2만원 내외이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높다.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1년에 한번씩 보강 접종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4000두 분량의 광견병 예방백신을 지정동물병원에 공급했다. 접종 가능 동물병원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제에 의무등록 대상이다. 대상동물에 대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방접종 기간 미등록반려견은 등록을 하고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배종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며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광주시 생명농업과(062-613-3981).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하철 승차권 소독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일회용 승차권에 대한 살균 소독과 역사 및 전동차 방역 활동 등 대대적인 청결관리 활동을 펼쳤다. <도시철도공사 제공>

광주지하철, 시민과 함께 개통 13주년 행사

28일 개통 13주년을 맞는 광주지하철이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를 펼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8일 상무역 등 각 역사에서 '개통13주년 기념 노사공동 캠페인'을 갖고 지하철 이용 승객들에게 기념품과 다과 등을 증정하며 대대적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날 남광주역에서는 '21세기연인

협회'의 종합공연, 상무역에서는 '빛고을색소폰연주단'의 색소폰 공연이 열리고, 평동역과 용산차량기지에서는 지하철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전남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메트로 생아와 함께 하는 지하철 견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과 즐거움을 나눌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자전거 터미널서 주말 무료 서비스 받으세요

광주시는 광주천과 영산강변 자전거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을 운영한다.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은 교량 아래 여유 공간에 마련한 자전거 통합서비스센터로,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겨울철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무상 수리, 자전거-안전장구 무료 대여, 안전교육, 자전거 길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 장소는 용산교·중앙대교·동천교 등 광주천변 3곳과 침단교·산동교·어등대교·극락교·승촌보 등 영산강변 5곳을 포함, 총 8곳이다. 각 거점터미널에 자전거 점문가 2인을 배치해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자전거·안전장

구 무료대여 장소는 동천교, 침단교, 산동교, 극락교 등 4곳이다. 지난해에는 총 45회 운영해 2만6000여 명의 자전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고, 행정자치부의 '2016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우수시책'에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김남균 광주시 도로과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리 등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거점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청과 거점터미널 등 공유 자전거 대여소에서 안전 장구도 대여하므로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헬멧 등을 착용하고, 평소에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싸고, 투자가치 전망있는 물건, 매매. **친절상담 H. 010 - 3605 - 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

거문도, 팬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1 - 1번지 - 49평
- 1260 - 2번지 - 90평
- 1376 - 2번지 - 67평
- 1351 - 4번지 - 182평
- 1352번지 - 58평
-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상담후 결정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임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광양, **싼**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